

하지 완전 절단상에 시행한 재접합술

김주성* · 백구현 · 정문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대구 현대병원 정형외과*

목적 : 미세술기의 발달과 함께 고도의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법이 발달하였으며, 재접합술에 대한 경험의 발달로 그 적응증이 확대 되고 있다. 특히 하지의 외상성 절단에 대한 재접합술이 시행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발생 빈도에 비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상지 절단 보다 심한 외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허혈 시간도 약 6~8시간이 최대 허용 범주로 짧으며, 상지와는 달리 하지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의지로 대체될 수 있고, 동반 연부 조직의 손상 등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재접합술이 성공한다면, 절단술에 비해 장점이 많다는 최근 여러 보고와 함께 선택적 증례에서 하지 재접합술을 시행하여 특히 완전 절단에서 성공한례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저자들은 1992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대구현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단일 부위 또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하지 환자에 재접합술을 시행하였다. 그 중 부위별로 양하지 절단(대퇴부 및 하퇴부), 슬관절부 절단, 하지의 절단, 족관절부 절단, 거골하 절단, 중족부 절단, 전족부 절단, 족지의 절단 등이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하지의 심한 압괴상으로 인한 불완전절단상 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된 제3형 개방성 골절은 포함하지 않았다. 단 1례의 구제 접합술이 있었다.

결과 : 저자들이 경험한 제 1족지의 재접합술의 경우 3례 모두 원위지골부위에서 재접합술이 시행되었으며 술 후 2년에 3례 모두 7~8 mm의 이점분별력을 보였다. 전족부 재접합술의 경우 압괴손상이 심하여 신전 건 굴곡건 모두 봉합하지 못했으나 하지의 연장을 위한 감각복합피판의 형식으로 의족 보다는 환자의 만족도등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또 중족부의 절단의 경우 길로틴 손상의 경우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족부에 대한 접합술도 앞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단 축이 10 cm 이상인 원위 경골 절단례에서 외고정을 이용한 연장술을 바로 시행하여 수상 5년에 10 mm의 이점분별력과 함께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근위부 절단으로 구제 접합술을 시행한 1례는 술후 피판의 괴사로 이차적인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총 15례의 중 12례가 생존하였고 모두 양호한 기능적 결과를 보였다.

결론 : 손상받은 하지절단의 재접합은 기술적으로는 용이한 외과적 분야이나 성공적 결과는 환자의 손상 전 기능적 범위의 획득 정도를 통해 판정된다. 정확한 환자 선정은 추후 안정적 결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회를 증가한다. 재접합의 위험은 수혈에 수반되는 패혈증과 장기간의 병원생활, 대치된 보장구의 기능 무계등이다. 하지가 성공적으로 재접합되었다면 환자의 최상의 기능과 외형적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 보고에서와 같이 하지 절단의 경우, 재접합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의지에 비해 기능적이나 외형적으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색인 단어 : 하지절단, 재접합술